

“터전을 불태우라 (BURNING DOWN THE HOUSE)”



3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프레스 오픈 행사에서 국내외 취재진들이 에드워드 킨홀즈&앤시 레드 킨홀즈의 작품 ‘오지만 디아스 퍼레이드’를 감상하고 있다.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5일부터 11월9일까지 66일간 38개국에서 103작가(111명)가 참여해 413점의 현대미술을 선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현대미술 축제 속으로

2014광주비엔날레 오늘 개막 11월 9일까지 66일 대장정
38개국 111명 작가 참여...푸른길공원 등 시내 20곳 행사

현대미술 축제 2014광주비엔날레가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11월9일까지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2·16·17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2014광주비엔날레에는 38개국 103개팀(111명)의 작가가 참여해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주제가 지닌 역동성과 혁신성을 담은 작품 413점을 선보인다.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3일 열린 프레스 오픈 행사에는 오쿠이 엔위저 2015베니스 비엔날레 감독, 마야 호프만 루마제단 이사장,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연방의 공주인 후르 알 카시미 샤르자 예술재단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세계 미술계 거장들과 스타 작가, 기자 등 200여명이 광주를 찾아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민욱 작가의 오프닝

퍼포먼스 ‘내비게이션 아이디어’를 비롯해 정금형의 ‘심폐소생술 연습’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전시작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올해 행사는 참여작가의 90%가 광주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는 신진 작가들로 구성돼 전시의 참신성을 강조했다. 전시관 본 전시 이외에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국제 포럼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퍼포먼스와 공연, 전시가 하나로 어우러져 통일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국제 미술계에 새로운 주제를 가치와 아시아성의 담론을 던질 예정이다. 제시가 모건 총감독은 “이번 전시는 유럽과 달리 성장한 한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연구의 결론과 마찬가지로”며 “불이 어떤 물질을 태우게 되면 그 물질이 변화하듯 다양한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막식은 4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김

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이용우 대표이사, 제시가 모건 총감독 등을 비롯해 시민과 국내·외 문화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사전 행사는 음식을 나눠 먹는 ‘식(食) 퍼포먼스’로 진행되고, 공식 행사는 오후 7시30분부터 주제 공연과 함께 열린다.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리움 개관 10주년과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협력 프로젝트의 아트포럼을 비엔날레재단 거시기술에서 진행한다.

시민들에게는 5일부터 전체 행사를 공개한다. 또 광주극장, 푸른길 공원, 임동성당 등 광주 20개 공간에서 시민들이 꾸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비엔날레 광장에서는 토, 일요일 오후 3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연이 함께 열린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쏟아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

“복지 디폴트 불가피”

기초연금 국비지원 등 건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중훈 순천시장)는 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그러나 복지 재정 지원을 이미 늘렸다고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일관 거부했다.

조중훈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이르렀다”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돼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

급 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2008년 22조원에서 올해 40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했다. 이는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7%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또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복지비는 4년간 5조 7000억원(연평균 1조 4000억원)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영구 인하와 같은 비과세 감면정책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은 악화돼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 1995년 63.5%에서 올해 50.3%로 하락했고, 지방예산 대비 자체 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올해 37.6%로 낮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린벨트에 민간 캠핑장 등 체육시설 허용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산지 가족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규제개혁 방안을 3개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도시인프라 수의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창출 방안 등이 담겼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 방안, 매일 4000만건이 발급돼 관리불편과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은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들어갔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족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용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투자·시장 창출 효과 17조5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 5697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상설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차공인 1.6L 연비 및 동력 • C 200 1,991cc, 1,50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8.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8.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owermatic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